

대학 입학금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사립대 입학금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국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가 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에 합의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라며 "기 합의된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와 사립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8월 전면 폐지를 확정했고 사립대학은

77.3만원미만 4년제 올부터 실비용외 4년간 年20%↓
77.3만원이상 4년제 실비용외 2022년까지 年16%↓

같은해 11월 전문대는 올 1월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했다. 각 대학의 이행계획에 따르면 입학금이 평균 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개교는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간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평균 77만3000원 이상인 4년제대학 61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간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이다.

사립전문대학 128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33%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간 매년 13.4%씩 감축한다. 정부는 2021년(4년간 감축) 및 2022년(5년간 감축)까지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하되 해당 등록금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2022학년도 신입

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원이 되며 3~4년후에는 사립대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들이 합의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고등교육의 큰축을 담당하는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낙하산 인사 신임 사장 임명 반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노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노조가 19일 이병호 신임 사장의 임명을 반대하며 취임 저지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부터 사옥 정문 앞에서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반발해 이 신임 사장의 출입을 막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의 aT노조원 40여명은 '대통령의 공약, 노동존중 사장님', '100년 aT를 위해 사장은 무엇을 하겠는가?', '공정한 인사 공정한 보상'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신임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전남 나주혁신도시 aT사옥 본관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취임식 참석을 위해 사옥 진입을 한 차례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에게 막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신임 사장은 현재 제3의 장소에서 이진우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신임 사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하고 통일농수산 상임이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보좌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등을 지냈다.

aT 사측 관계자는 "노조와 대화에 잘 마무리될 경우 예정대로 오늘 취임식을 진행하지만 불가피할 경우는 내일로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느새 다가온 '봄' 우수(雨水)인 19일 오후 세종시 이진동 세종호수공원에서 노부부가 포근한 햇볕을 쬐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5·18 왜곡’ 전두환 회고록 2차 출판금지 소송 결과는?

5·18민주화운동 왜곡 내용 일부를 삭제하고 재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의 두 번째 출판·배포 금지 여부를 이르면 이달 23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재발간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해 5·18기념재단 등이 광주시법에 제기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2차 소송의 최종 심판 기일이 지난 1월31일 열렸다.

앞서 5·18단체는 '희생자들에 대한 암매장 부정(485페이지)', '광주교도소에 대한 시민군 습격(518페이지)', '무기고 탈취시간 조작(403페이지)', '시민군의 파출소 습격 및 방화(391페이지)' 등 5·18 역사 왜곡을 이유로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5·18 당시 시신을 암매장한 것이 아니라 가매장했으며 모두 수습됐

다, '광주교도소에 대한 시민들의 습격 사건은 사실이다', '계엄군 발포는 시민들의 무기 탈취 등에 따른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김정호(45·사법연수원 38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이달 5일 시민군의 무기 파탈 시각이 조작됐다고, '광주교도소에 대한 6차례 시민군의 습격 사건도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5·18 당시 계엄군(3공수)들의 암매장 증언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검찰 조사 자료 등도 제출했다. 지난 8일에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특조위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전두환과 신군부의 자위권 논리 등이 허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종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3주 안으로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한다.

이르면 23일까지 '전두환 회고록' 두 번째 소송의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인다.

23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법원 정기인사와 맞물려 3월 초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원래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올해 가장 큰 목표가 5·18 진실규명이다.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 금지 등을 포함해 5·18 왜곡을 뿌리 뽑고, 왜곡 세력들이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이란, 기상 악조건에 추락 여객기 수색 연기

기상조건 악화로 이란 구조당국의 추락 여객기 수색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란 국영TV는 이날 "강풍과 눈비, 어둠으로 구조대와 구호팀이 (여객기가 추락한)고도에 도달할 수 없게 됐다"며 "내일 아침까지 수색 작업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상 조건이 나아지면 새벽에라도 수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 다섯 대가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적십회사는 "45개 구조팀이 (여객기가 추락한) 데나산에 배치됐지만 여전히 잔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안개와 눈비로 헬리콥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산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남부 아수즈를 향해 테헤란 메리드 공항을 출발한 아세만 항공 소속 여객기가 이륙 45분여만에 레이더에서 사라진 뒤 자그로스 산맥의 데나 산(해발 440m)에 추락했다.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68여 명 전원 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슬픔에 압도됐다"고 피해자들을 애도했다. 유가족들은 메리드 공항 인근 사원에서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남편을 잃은 한 여성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슬퍼했다.

비행 시간을 놓쳐 추락한 여객기에 탑승을 모면한 한 남성은 현지 언론에 "내게는 신의 가호가 있었지만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에 슬픔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수십년에 걸친 외교적 고립으로 이란 항공사들은 낡은 항공기를 최신식으로 교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석했다. 추락한 항공기도 25년 된 노후 기종이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조를 위한 교통부 산하 위기관리 조직 창설을 명령했다.

영국의 항공사고조사단(AAIB)이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항공안전청(BEA)도 동참할 예정이다. BEA 대변인은 "3명의 수사관과 기술고문이 사고 현장에 파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호텔 가스 폭발 사고 사망자 18명

인도 서부에서 발생한 호텔 가스폭발 사고의 희생자가 18명으로 늘었다고 신화통신, AFP 등 외신들이 18일 보도했다.

현지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폭발 현장에서 수색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며 "오늘 9명의 시신을 더 발견해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로 발견된 사망자 9명에는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됐다.

또 다른 추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AFP에 "지금까지 시신 18구를 수습했다"며 "부상자 5명이 중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가 일어난 것은 지난 16일 밤이다. 서부 라지스탄주(州) 아지메르에 있는 작은 마을 베이와르에 있는 한 호텔에서 결혼식이 열리던 중 가스 실린더 2개가 폭발한 것. 이 사고로 3층짜리 호텔은 거의 다 무너졌고 인근 주택들도 파손됐다.

현지 재난대책당국은 병력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구조 및 수색작업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결혼식 요리를 위해 사용하는 요리용 가스 실린더 중 1개에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TV 방송사 NDTV는 요리사가 가스 실린더에서 요리용 가스통을 다시 채우려다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 항공기 불시착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시 남쪽의 샌 마틴 공항 부근 고속도로에 18일(현지시간) 소형 항공기 한 대가 불시착했지만 신고된 부상자는 없다고 항공당국이 발표했다.

연방 항공청 이언 그레고어 대변인은 항공기 조종사가 착륙 직전 엔진 고장을 신고했으며, 이후 샌타 클라라 카운티의 101번 도로의 중앙분리대 풀밭 위로 비행기를 착륙시켰다고 밝혔다.

그레고어는 이 비행기 탑승자는 조종사 한 사람 뿐이었으며 착륙시 다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도 지상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없다고 말했다. 착륙한 피어퍼 PA-46 경비행기도 거의 손상을 입지 않았다. 이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고속도로 위에 차선과 직각 방향으로 착륙해 있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었다.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일반 건강검진



생체표지자 건강검진



영양아 건강검진



청력검진



구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검진종류	발견률	발견률 감소
일반건강검진	발견률 100%	-
생체표지자 건강검진	발견률 58%	42%p 감소
영양아 건강검진	발견률 100%	-
청력검진	발견률 100%	-
구강검진	발견률 100%	-

*발견되는 질환이 총합보다도 더 적은 질환 발생률

보건복지부 |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